

# 鬱陵島 羅里洞의 투방집 研究

張 保 雄

<目 次>

1. 序	6. 투방집의 平面
2. 研究地域의 概觀	(1) 3 間型 平面
3. 지층의 材料 및 型	(2) 4 間型 平面
4. 투방집과 화릉집	7. 建物の 配置와 附屬建物
5. 우데기	8. 要約 및 結言

서 調査한 理由는 積雪이 많은 이 곳의 自然環境에서, 民家를 中心으로 한 生活狀을 보기 위함이고, 또한 積雪과 民家の 構造 및 平面을 關聯시켜 理解하기 위함이었다.

## 1. 序

文化傳播의 한 現象으로서 民家가 울릉도에 처음 세워질 때에, 그 民家は 本土의 어느 地方과 關係가 깊으며, 또한 울릉도에 移住한 開拓民들은 本土와 다른 自然環境에 적응하기 위해서 民家를 어떻게 變容시켰는가를 究明코자 울릉도에서도 가장 奧地인 羅里洞을 選定하여 그 곳의 투방집(果木型 民家)을 中心으로 研究하였다. 그리고 투방집은 韓半島에 언제부터 나타났고, 그 文化의 源流는 어느 地方이며, 또한 鐵器文化의 流入과 투방집의 出現과는 어떤 關係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考察하였다.

투방집은 현재 本土에서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곳 羅里洞에는 比較的 集團的으로 잘 殘存하고 있다. 그러나 原型은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變形되어 있었다. 鬱陵島의 民家에만 있는 독특한 設備인 우데기에 관해서도 詳細히 조사하고, 그의 發生 原因과 機能에 대하여 究明해 보았다.

研究方法은 現地 調査를 통해서 資料를 수집하고 分類·分析하였다. 調査時期는 1977年 1月 16·17·18·19日 4日間이었다. 冬季를 擇해

## 2. 研究地域의 概觀

鬱陵島는 浦項의 東北方 海上에 있는 孤島이며 面積은 71.1km<sup>2</sup>이다. 第3紀에서 第4紀에 걸친 火山活動으로 분출한 粗面岩으로 이루어진 火山島이다. 中央에 聖人峰이 솟아 있고, 聖人峰의 北方에 일 邊이 약 2.5km에 달하는 caldera가 있다. 여기를 羅里盆地라 부르고, 그 面積이 약 150町步<sup>1)</sup>에 달한다. 여기는 울릉도에서 가장 넓은 平地에 해당하고, 東便에 羅里洞, 西便에 卵峰村落이 있다.

울릉도는 古代로부터 于山國이라 불렀고 相當한 島民이 거주하다가 新羅時代에 우리의 領土로 編入되었고, 高麗時代에도 麗朝의 屬領이었다. 麗末에서 近世朝鮮末까지 空島政策을 取하여, 울릉도에 들어가 居住하는 것을 禁止하고 때때로 搜討官을 파견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高宗은 1881年(高宗 18年)에 副護軍 李奎遠을 鬱陵島檢察使에 任命하여, 울릉도의 形勢를 상세

1) 姜錫午, 1971, 新韓國地理, 새글사, pp. 305~306.

히 조사 보고토록 하였다. 李奎遠의 「鬱陵島檢察日記<sup>2)</sup>」에서 羅里洞에 관한 記錄은 다음과 같다.

「……漸入中谷 越五次大嶺 至最下嶺 嶺名 乃紅門街也 踰入 則是爲鬱陵島中心羅里洞也 正午開局 連抱之木 參天蔽日 彌望無際 而地形平垣 長治十里 廣近十里 周回近四十里 而環以衆峰 轟轟疊嶂 宛如天生城郭 眞所謂一夫當關 萬夫慕開之地也……」 즉, 羅里洞의 盆地的인 地形을 잘 說明하였고, 戰略的인 主要地形이라는 說明도 덧붙이고 있다.

「……島之中地 羅里洞者 山中開野 平蕪沃衍 可居千戶 其餘數三百戶之地 難以枚舉 而地方約可五六十里 桑柘苧楮 不種自生 足以爲一縣之地……」

즉, 울릉도의 中心에 羅里洞이 있고, 산중에 전개된 들은 평탄하고 비옥하여 1,300餘戶가 居住할 수 있으며, 뽕나무와 모시는 심지도 안했는데 自生하고 있으며, 하나의 縣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內容의 記錄은 약간 誇張되었으나, 高宗으로 하여금 數百年間 施行해오던 空島政策을 버리고 울릉도에 開拓命을 내리게 하는 데에 크게 影響을 주었던 要因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現在 羅里洞의 戶數는 24戶이고, 人口는 男子 75人, 女子 60人 計135人이다. 耕地面積은 33.4ha이며, 전부 밭이다. 主要 農作物은 감자와 옥수수이고, 이것은 主食物이며, 또한 主要 所得源이 된다. 감자는 3월에 播種하여 9월에 收穫하고, 옥수수는 5월에 파종하여 10월에 수확한다. 其他作物로는 기장(3~10月), 콩(6~10月), 조(6~10月) 등이 있다. 現在 이곳 住民의 出身道는 慶北이 20戶, 慶南이 2戶, 京畿가 1戶, 忠南이 1戶 등이다. 慶北地方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울릉도가 行政上으로 慶北에 屬해 있고 浦項이 陸地에서 出航하는 港口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舊韓國政府에서 1881年(高宗 18年)에 鬱陵島開拓命을 發布하고 江原道·慶尙道·全羅道·忠清道로부터 多數의 移住를 勸奨한 바 있었으므로 位置的으로 近接한 江

原道の 開拓移住民이 많았었다고 생각되며, 실제로 現居住者의 本籍이 慶北으로 되었으나 祖上의 原居住地는 江原道인 家口가 많다. 따라서 이곳의 民家도 江原道の 山地 火田民 民家에서 由來된 것이 많다고 보여진다.

現存하는 家屋의 地붕 材料는 합석이 10戶, 새(茅)가 9戶, 너와가 5戶이고, 壁材料는 瓦筒(土壁)이 10戶, 투방(累木壁)이 12戶, 벽돌이 2戶이다. 房數는 2個가 14戶, 3個가 9戶, 1個가 1戶이다.<sup>3)</sup>

住民의 主所得源은 農産物이나, 農閑期에는 一時的으로 오징어잡이에 從事하여 所得을 보충하는 農家도 있다. 日帝治下에서는 伐木과 木材 運搬이 主要한 副收入源이었다고 한다. 현재 이곳의 戶數는 계속 減少를 보이고 있다. 보다 收入이 좋은 漁村으로, 또는 本土로 移住해가고 있다.

### 3. 지붕의 材料 및 型

교통이 불편하고 비교적 外地와 연락이 적은 고립된 生活을 하는 곳의 지붕의 材料는 주변에 소 얻기 쉬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羅里洞 주변에는 森林이 울창하였으므로 이곳의 첫 移住者들은 비교적 잘 쪼개지고 腐蝕에 강한 고래솔·염나무 등으로 너와를 만들어 지붕을 이었다. 대체로 耐久年은 10~20年이다. 강원도 奧地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람에 날리지 않게 너와 위에 무거운 돌을 많이 얹어 놓았다. 현재는 山林保護 施策으로 인하여 너와의 生産이 不可하므로 너와 지붕의 民家は 점점 減少되어가고 있다. 羅里洞의 총 24戶 중에서 너와지붕의 民家は 5호만이 殘存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너와지붕도 특별한 保存對策이 없는 한 腐蝕의 度가 심하여 2~3年內에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너와지붕이 차츰 새(茅)지붕으로 바뀌고 있다.

주변 산지에 自生하는 새(茅)를 지붕의 재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새의 耐久年은 보통 2年間이다. 새 지붕을 바람에 날리지 않게 다래

2) 李瑄根, 1963, 近世鬱陵島問題와 檢察使 李奎遠의 探險成果, 大東文化研究 第1輯, pp. 328~329.  
3) 調査當時(1977年 1月) 羅里洞籍簿에 의함.

줄기 또는 머루 넝쿨로 엮어 매었다. 또는 長木으로 눌러 놓기도 하였다. 새지붕의 民家は 현재 9戶가 남아 있다. 새로 이영을 엮은 후에 지붕을 이는 행사는 공동 작업으로 한다.

요즈음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지붕 改良事業이 활발하여 함석지붕의 民家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陸地部에는 農家 지붕 改良을 주로 슬레이트로 많이 하나, 이곳 울릉도는 슬레이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인즉, 시멘트 슬레이트는 陸地에서 이곳까지 運搬時 荷重이 무겁고, 또 지붕위를 水産物 및 農産物 乾燥場으로 많이 이용하므로 지붕 위를 자주 밟으면 破損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多雪地域에서는 지붕의 材料는 가벼운 것이 좋고 또 눈이 잘 미끄러지는 것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다. 羅里洞에는 함석지붕의 가옥이 10戶 있다.

지붕型은 모두 우진각 지붕이다. 바람에 저항이 가장 적은 형이다. 架構法은 투방壁 위에 직경 30cm 内外의 마루臺工이 용마루를 받히고 있고 용마루에 서까래를 엮은 3 樑式이다. 厚柱를 마루臺工으로 사용한 것은 積雪時의 重壓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투방집은 完全한 架構式이 되지 못한다. 즉, 기둥이 없기 때문에 깔도리가 없고 투방벽의 맨 위의 통나무에서 서까래를 받히고 있다. 그리고 마루 臺工을 받히는 들보를 만들지 않고 통나무벽 위에 마루대공을 엮어 놓았다. 정지부분은 통나무 벽이 없으므로 기둥을 세우고 도리를 만들어 架構式을 살리고 있다.

#### 4. 투방집과 화통집

羅里洞의 民家를 壁의 構造 및 材料로 分類할 때 크게 둘로 나눈다. 즉 외가지를 엮고 그 위에 흙을 바른 壁으로 된 집을 화통집이라 부르고, 둥근 통나무를 그대로 우물틀처럼 쌓아올려서 壁을 만든 집을 투방집이라고 한다. 太白山脈의 山間 奧地에서 累木型民家를 투방집이라 부르는데, 울릉도에서도 투방집 또는 투막집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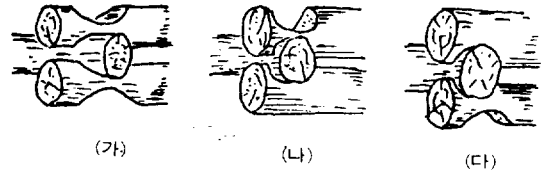


그림 1. 통나무 양단에 흠을 파는 경우인데 (가)는 상하에 흠을 만들었고, (나)는 위에만 흠을 만들었고, (다)는 아래쪽에만 흠을 만들었다. 나리동에는 (나)와 (다)뿐이다.

부르고 있다. 이것은 울릉도에 처음 들어온 開拓移住民의 出身地와 관련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일반적으로 累木型 民家를 귀틀집이라 呼稱하나 地方에 따라서 相異한 俗稱이 있다. 平南地方에서는 방틀집(方機家), 또는 목채집(木叉家)이라 부르고 平北 江界地方에서는 틀목집(機木家)이라 부르기도 한다.<sup>4)</sup>

羅里洞에 투방집은 12戶 남아 있다. 여기의 투방집에 쓰이는 여러 종류의 木材는 俗稱으로<sup>5)</sup> 고래솔, 마고마, 솔송나무, 너도밤나무, 칭칭목, 마개목, 회솔목 등이라고 한다. 이런 木材는 羅里盆地 周邊山地에 많은 것들이다. 통나무의 굵기는 작은 것은 直徑이 12cm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直徑이 16~18cm의 것이며, 큰 것은 20~26cm의 것도 있다. 대부분 톱으로 잘랐으나 간혹 도끼로 자른 것도 있다. 그리고 통나무의 양끝에 도끼로 흠을 한 쪽에 뚫고 이 흠으로 인해서 우물틀 모양으로 쌓아올릴 때 서로 얽혀서 무너지지 않게 된다(그림 1). 그리고 흠으로 인해서 통나무와 통나무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는 점도 있으나 그것보다도 못을 사용하지 않고 壁을 만드는 데는 흠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통나무 사이의 틈은 진흙으로 메워서 바람을 막는다. 나무가 서로 交叉된 끝 머리는 반드시 방의 四隅에 나와 있어서 몇 개의 통나무로 벽을 쌓았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방의 出入口를 만드는 方法은 累木의 壁에 적당한 곳을 알맞게 長方形으로 잘라내고 그 兩側에다 통나무로 문설주를 세우고 왼쪽의 당길문을 단다. 굵은 통나무로 쌓아 올린 壁이기 때

4) 孫晋泰, 1948,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乙酉文化社 p. 48.

5) 羅里洞에 居住하는 許花草氏 談

문에 積雪量이 많은 겨울에도 벽이 무너지는 경우가 없으며 또 室外의 冷氣를 굽은 통나무가 차단하고 있어서 室內의 暖氣가 오래 유지된다. 多雪地方의 雪害에 對備한 적당한 民家라 생각된다. 羅里洞에 開拓移住民이 定着을 시작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80年前으로 생각되는데 當時 貧農들이 갖고 있던 道具는 營農에 필요한 간단한 農具와 伐木에 필요한 도끼 뿐이었다고 생각된다. 톱도 없고 못, 대패도 없었던 당시에 도끼로 伐木한 木材를 사용해서 建築하는 데는 투방집이 가장 쉬웠을 것이다. 현재 殘存하는 투방집의 建築에 所要期間을 살펴보면 2칸의 방을 만들고 온돌을 놓는데 3日 걸리고 지붕을 만들고 정지를 만드는데 4日 걸리고, 전부 所要된 日數는 7日이던 한 채의 투방집이 完成된다고 한다.

過去에 韓半島의 山間에서 遊農的인 火田耕作 民은 풍부한 木材를 이용하여 原始的인 투방집을 세우고 生活하다가 地力이 다하면 그 집을 버리고 他處로 가서 또 투방집을 짓고 居住하였다. 해방전의 투방집 分布를 보아도 火田耕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蓋馬高原, 狼林山脈의 兩斜面 및 太白山脈의 山岳地方에 투방집이 많았다. 울릉도의 투방집은 火田耕作과 직접적인 關係는 없다고 하더라도 火田耕作의 文化를 習得했던 住民들이 移住해 傭으로써 形成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殘存하는 이곳의 투방집은 改築내지 移築한 것이다. 이곳의 투방집은 正枝의 구조 벽의 구조 지붕의 구조로 보아 一時的인 定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곳에서의 오랫동안의 定着生活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방의 四隅 地面에는 반드시 주춧돌이 놓여 있고 그 위에 통나무를 쌓아서 방을 만들었다.

韓半島에 언제부터 투방집이 생겼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자. 累木家의 最古遺物은 樂浪時代의 木槨墳인 彩籬塚을 들 수 있다. 이 墳은 통나무를 角材로 다듬었고, 빈틈이 없이 차곡 차곡 쌓아올려 만든 累木型의 大槨墳이다. 漢代의 鐵器文化가 樂浪에 導入되어 伐木具로서 도끼(鐵斧)

의 보급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累木型의 木槨이 可能했다고 본다.

투방집에 관한 最古 記錄은 三國誌의 「東夷傳」의 弁辰傳 註에 引用된 「魏略」의 內容이다.

「其國作屋 橫累木爲之 有似牢獄也」

즉, 弁辰의 사람들은 나무 토막을 가로 쌓아 올려 家屋을 만드는데 그 모양이 마치 中國의 監獄과 같다고 했다. 當時 馬韓의 家屋은 墳塚形의 草屋土室 즉 움집으로서 出入口가 위에 있고 가족이 모두 그 안에서 居住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왜 弁辰에는 累木의 투방집이 만들어졌는가? 이것도 鐵器文化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上記의 弁辰傳에 鐵에 관한 記事가 있다.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즉 弁辰에서는 鐵을 産出하고 韓人과 東濊人과 倭人이 와서 모두 貿易해가고 또 모든 賣買에 鐵을 사용함이 마치 中國에서 錢幣를 사용함과 같다고 하였고 樂浪·帶方 二郡에 매하여서도 鐵을 供給하였다는 것이다. 當時 弁辰의 鐵은 東方의 國際貿易品에서 가장 중요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었다.<sup>6)</sup> 三韓 중에서 弁辰에 鐵이 많았고 따라서 伐木具로서의 도끼(鐵斧)가 많이 보급되어 쉽게 통나무를 生産할 수 있었기 때문에 累木型의 民家가 많이 建築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北方으로부터 鐵器文化가 傳來된 이후에 累木型의 民家가 弁辰에 形成되었다고 본다. 高句麗의 麻線溝 第1號墳 壁畫에 우진각 지붕의 투방집이 있다. 高床의 倉庫建物로서 하나의 지붕 밑에 雙倉으로 되어 있다.<sup>7)</sup> 古代에 韓半島에는 南에서 北으로 全域에 걸쳐 투방집이 分布하고 있었음을 推察할 수 있다. 그리고 투방집의 世界的 分布를 보던 舊世界에 二帶分布를 보이고 있다.<sup>8)</sup> 하나는 亞寒帶의 森林地帶인 스웨덴·핀란드·중앙 및 북부 러시아·시베리아 一帶이고, 또 하나는 프랑스·남부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보히미아·카르파티아·트랜실베이니아·터어키·이란·캐시미르로 연결된 地帶이다. 韓半島의 투방집도 前者의 分布

6)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 294.

7) 金正基, 1969, 高句麗古墳에서 보는 木造建物, 金載元博士 回甲紀念論叢 pp. 889~890.

8) Wilbur Zelinsky, 1953, "The log House in Georgia," *Geographical Review*, pp. 184~185.

地帶와 연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新大陸의 투방 집은 舊大陸에서 傳來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5. 우 데 기

우데기는 울릉도 民家에 있는 독특한 設備이다. 지금까지 우데기는 多雪地方인 울릉도에 있는 民家の 防雪 設備로만 주로 언급되어 왔으나 그외에도 防風·防雨·遮陽의 機能을 갖고 있다. 지붕의 처마끝 안쪽에 여러 개의 기둥을 집주위에 세우고 새(茅)로 이엉을 엮어 出入口를 제외하고, 그 기둥에 기대어 집주위에 새벽(茅壁)을 친 것이 우데기이다. 房의 투방벽은 內壁에 해당하고 우데기는 外壁에 해당된다. 房壁과 우데기와의 공간을 축담이라고 한다. 축담을 통해서 집안을 일주할 수 있다. 울릉도는 겨울철의 北西季節風이 東海上의 습한 공기를 몰아 불어주기 때문에 韓國의 最多雪地로 되어 있다. 특히 聖人峰을 南쪽에 둔 羅里盆地에 積雪이 가장 깊다. 그 깊이는 약 3m에 이른다.<sup>9)</sup> 우데기는 日本 東北地方의 日本海沿岸의 多雪地域에 있는 商街를 연결한 간기(雁木)와도 다르며, 또한 積雪時에 壁을 보호하기 위한 日本民家の 雪圍와도 다르고, 中國의 南東部와 台灣에 많은 強烈한 日射와 豪雨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停仔脚하고도 다르다. 우데기는 이웃과의 連絡에는 何等の 關係



사진 1. 羅里洞 許花草氏宅의 우데기

가 없고 積雪時 家族들의 屋內活動空間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데기와 房壁 사이에 있는 축담은 幅이 1.2~1.6m이고 이 축담은 積雪時에 作業空間·貯藏空間·生活空間이 된다(그림 2). 또한 우데기는 寒冷한 北西風·北東風의 防風壁도 된다. 夏季에는 우데기가 強한 日射를 遮斷하기 때문에 축담에 그늘을 만들고, 바람과 함께 드리치는 비를 막는 機能도 있다. 따라서 우데기는 四季 언제나 設備되어 있다. 이쯤에 많은 비바람과 겨울에 많은 風雪에 對稱하여 우데기를 考案해 낸 것은 이곳 주민들의 自然環境에 대한 理解에서 나온 智慧의 產物이다.

우데기의 材料는 주로 새(茅)이나 짚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前面은 새(茅)로 하고 側面과 後面은 옥수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前面을 板子로 하고, 側면과 後面을 새(茅)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前面을 합석으로 만든 경우도 있다. 板子우데기의 경우를 아마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日本語의 雨戸에서 出來된 것 같다. 우데기의 出入口는 방의 出入口와 境지의 出入口 앞에 만들어 出入과 採光의 便宜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데기의 큰 短點은 屋內的 採光이 不良한 點이다. 새(茅)우데기의 出入口에는 새를 밭(簾)같이 엮어서 말아서 올렸다 내렸다 한다(사진 1). 비닐 비료 무대를 사용한 집도 있는데 採光이 매우 좋다. 板子우데기의 경우는 板子の 미달이 문을 만들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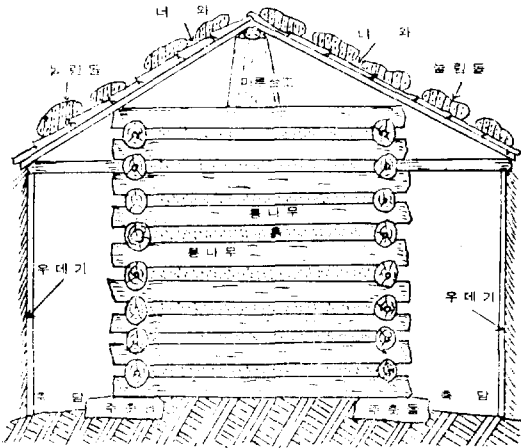


그림 2. 투방집의 斷面圖

9) 金光植外, 1973, 韓國의 氣候, 一志社, pp. 52~53.

## 6. 투방집의 平面

羅里盆地에 殘存하는 투방집의 平面類型은 3間型和 4間型 등의 2종류이다. 그러나 開拓移住民들이 처음에 이곳에 定着을 시작했을 때는 방 1칸에 정지 1칸의 2間型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2間型은 없어지고 3間내지 4間으로 발전되었다. 즉 家族이 늘고 生活이 安定됨에 따라 1칸의 방에다 방 1칸을 달아 내어 방 2칸과 정지 1칸의 平面인 3間型으로 增築된 것이 많다. 또 처음부터 방 2칸에 정지 1칸의 3칸 平面으로 建築된 투방집도 있다. 그러나 前者의 경우는, 원래의 방 1칸은 투방이고 증축된 방 1칸은 화통인 것이 많다. 3間型의 內部空間 構成要素는 정지, 큰방, 작은방(또는 사랑방), 축담 등이며, 마구가 정지의 뒤쪽 축담에 있는 경우도 있다. 4間型 平面은 비교적 家勢가 있고 家族이 많은 경우의 民家에서 볼 수 있다. 4間型의 內部空間 構成要素는 정지, 큰방, 복판방, 갓방 등이며, 헛간이 정지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마구가 정지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많은 機能이 몸체에 凝集되어 있는 것은 積雪時에 屋外 活動이 곤란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대체로 本土의 山間部에 많이 分布하는 椽집도 主要 機能이 集中되었는데, 비교적 古形에 속하는 것이다.

### (1) 3間型 平面

#### [事例 1] 鬱陵郡 北面 羅里洞 45 陳壽生氏宅 (그림 3)

현재 羅里洞에서 가장 오래된 투방집의 하나로, 60餘年前에 건축되었다. 투방의 재료는 고래솔, 너도밤나무, 솔송나무 등이다. 우진각의 너와지붕이다. 家族은 子女 4人和 內外합해서 6人이다. 원래는 정지 1칸과 큰방 1칸의 2間집이었으나 후에 사랑방을 화통으로 增築하여 3칸平面이 되었다. 따라서 달아낸 사랑방은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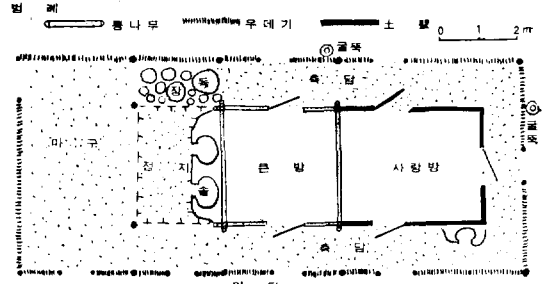


그림 3. 羅里洞 陳壽生氏宅의 平面圖

통(土壁)으로 되었다. 대부분의 民家에서 사랑방이라는 呼稱보다 작은 방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 집의 경우는 작은방은 없고 사랑방이 있다. 우리나라의 房의 呼稱은 房의 位置에 의해서 붙여지는 경우와 機能에 의해서 붙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방은 後者에 속하는 것이다. 사랑방의 크기는 10尺×12尺이고, 비교적 넓은 편이다. 안방은 10尺×10尺의 투방이며 어린아이와 婦人이 起居한다. 정지는 10尺×7尺의 크기인데 정지벽이 없는 것이 이 地方 民家의 特色 중의 하나이다. 우데기로 정지벽을 대신한다. 정지 바닥은 地面보다 약 70cm정도 낮게 되었고 낮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온돌고래로 잘 들어가게 되었다. 정지 뒤쪽에 축담을 넓게 해서 마구를 만들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마구를 마당 앞에 別棟으로 만들어 소 1頭가 있다. 새(茅)우데기가 집 주위에 둘러 있다.

#### [事例 2] 鬱陵郡 北面 羅里洞 高英煥氏宅 (그림 4)

약 30年前에 건축된 전형적인 투방집이다. 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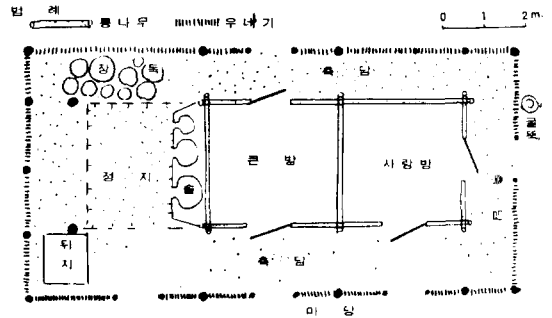


그림 4. 羅里洞 高英煥氏宅의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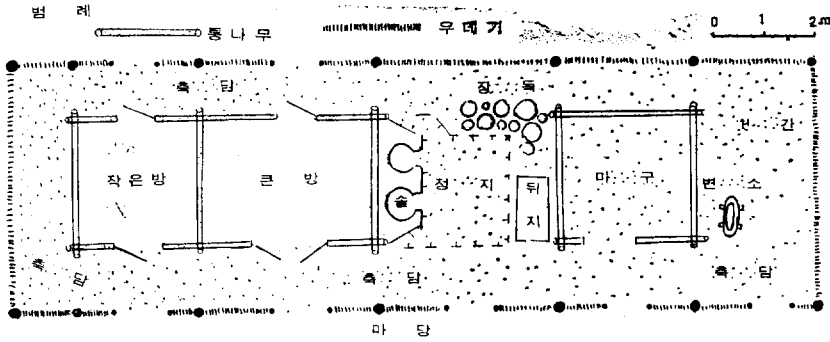


그림 5. 羅里洞 成相道氏宅의 平面圖

居住地는 天府이며 8人家族이 居住하고 있다. 지붕은 우진각의 새(茅)지붕이다. 큰 방과 사랑방의 크기는 각각 10尺×10尺 정도이다. 정지 바닥은 길게 깔고, 정지 안에 크고 작은 항아리와 단지가 있는 장독이 있다. 本土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지 밖에 外部人의 出入이 적은 양지바른 뒤안에 장독을 設置하는데, 羅里洞에서는 어느 집이나 정지 주변의 축담에 장독을 設置하고 積雪時에 屋內에서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뒤지도 정지 뒤의 축담에 놓고 있는데 그 크기는 옥수수 5섬 정도 넣을 수 있는 것이며, 板子로 만들어진 큰 箱子이다. 이 집의 우메기는 前面을 함석으로 만들어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側面과 後面의 우메기 材料는 옥수수대 로 되어 있다.

(2) 4間型 平面

[事例 1] 鬱陵郡 北面 羅里洞 123 成相道氏宅 (그림 5)

羅里洞에서 투방집의 原形이 가장 잘 保存된

民家이다. 지붕은 우진각의 너와 지붕이고 너와는 주로 고래솔로 만들어졌다. 너와 위에 많은 굵은 礫石을 얹어 놓아 너와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되었다. 투방의 재료는 고래솔, 너도밤나무, 솔송나무 등이고 투방의 壁높이는 7尺이다. 이 집의 平面은 4間이나 큰 방과 작은 방이 투방이고, 마구도 투방으로 되었고 그 사이에 정지가 있다. 정지 안에 장독, 뒤지가 있고 정지 壁은 없으며, 축담 밖의 우메기가 정지벽이 된다. 마구가 있으나 현재 가축은 없다. 일반적으로 羅里盆地에서는 土質關係로 여기서 나는 풀을 뜯기면 家畜이 잘 자라지 못하며, 현재는 郡當局에서 配當한 소를 試驗飼育하고 있다. 마구의 右側에 있는 축담의 幅이 8尺정도로 비교적 넓은데, 여기에 변소가 있고 헛간으로도 사용한다. 현재 이곳의 民家에는 변소가 마당에 別棟으로 되어 있으나, 成相道氏宅의 것이 원래 변소 위치라고 생각된다. 積雪時에는 食糧과 燃料 및 飲料水만 있으면 長期間 屋內의 生活이 可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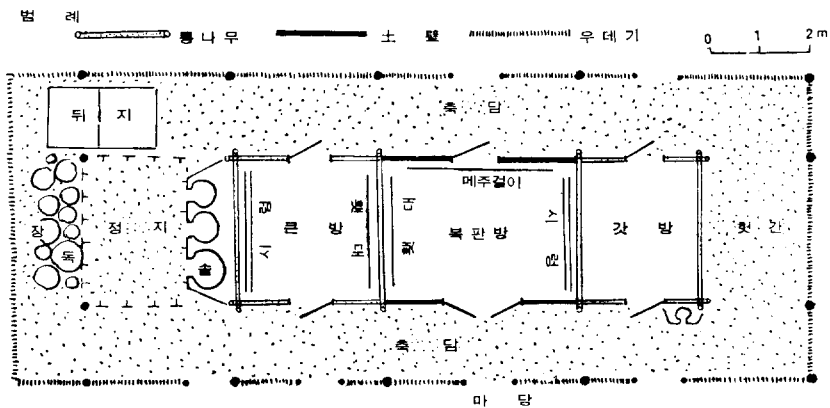


그림 6. 羅里洞 許花草氏宅의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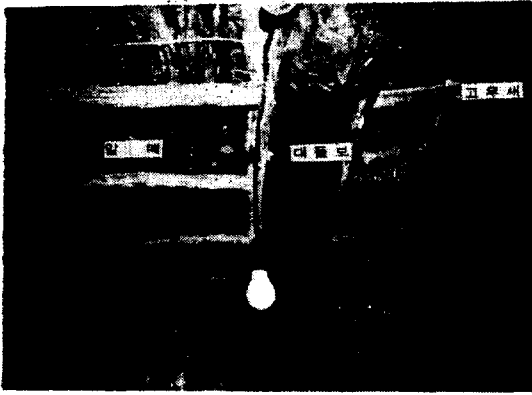


사진 2. 平里洞 許花草氏宅의 북관방 魚骨形 椽장

하도록 屋內의 空間構造가 되어 있다. 典型的인 多雪地方의 民家로 保存의 價値가 매우 많은 집이다.

큰방과 작은 방의 椽장은 가운데에 대들보가 있고 그 양측으로 판자를 얹어 놓았다. 그 위에 두껍게 흙을 얹어 놓아 겨울의 윗풍과 여름의 지붕위의 日射를 遮斷하고 있어 寒暑의 差가 큰 大陸性 氣候에 가장 적절한 椽장이라 생각된다. 椽장의 높이는 방바닥에서 6尺이다.

[事例 2] 鬱陵郡 北面 羅里洞 45 許花草氏宅 (그림 6)

이 집은 9年前에 투방집을 改築한 것이다. 지붕은 우진각의 새지붕이다. 家主 許花草氏의 先親이 70여년 전에 江原道 大和에서 이곳으로 移住해 왔다. 100년도 못되는 울릉도 開拓史에 비하면 비교적 일찍이 羅里洞에 定着한 편이다. 현재의 平面에서 房의 配列은 정지, 큰방, 북관방, 갓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間型에서 가장 일반적인 칸배치이다. 큰방과 갓방은 투방이고 북관방은 토벽의 화통이다. 큰 방은 婦人과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고 북관방은 主人 許花草氏가 사용하고 갓방은 長成한 子息들이 사용하고 또한 곡물 저장 장소로 쓰인다. 대개의 경우 정지에 연속된 방이 큰 방이다. 이 呼稱은 방의 크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重要度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重要한 家財를 대부분 큰 방에 두고 있으며 또한 집안 살림의 중심이 되는 방이다. 북관방은 사랑방에 해당하나 방의 위치에 의해

서 붙여진 이름이고, 갓방도 방의 위치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갓방 옆의 측담 폭은 약 7尺인데 연료와 사료를 저장하는 坑간으로 이용한다. 정지의 들레에 장독, 뒤지, 큰 물독이 놓여 있다. 방의 椽장은 魚骨形으로 江原道 山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椽장의 중앙에 직경 18cm의 대들보가 가로 지르고 그 양편에 고무새가 걸치고 고무새 위에 알대가 퍼지고 그 위에 두께 약 10cm정도로 흙을 얹었다 (사진 2). 방벽에는 日常입는 옷을 걸어두는 繩대가 있고 또 이불 등을 얹어두는 시렁이 있다.

## 7. 建物配置와 附屬建物

羅里盆地의 北쪽은 降雨量이 많으면 沈水되므로 盆地의 中央에서 南西쪽으로 약간 높은 곳에 民家가 分布되어 있다. 自己所有의 農耕地 옆에 建築하기 때문에 民家間의 거리가 不規則한 散村을 形成하고 있다. 垓地는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方形이 많고 垓地 周圍는 고래솔·너도밤나무·단풍나무 등의 가지를 엮어 세워서 울타리를 만들었고, 또는 옥수수대를 엮어 세워 만든 울타리도 있다. 여기서 울타리의 機能은 防風·防雪이 주가 되며, 또 밖에서 집안이 보이지 않게 하는 눈가림의 기능도 있고, 境界의 표지가 되기도 한다. 垓地로 들어가는 出入口를 삼작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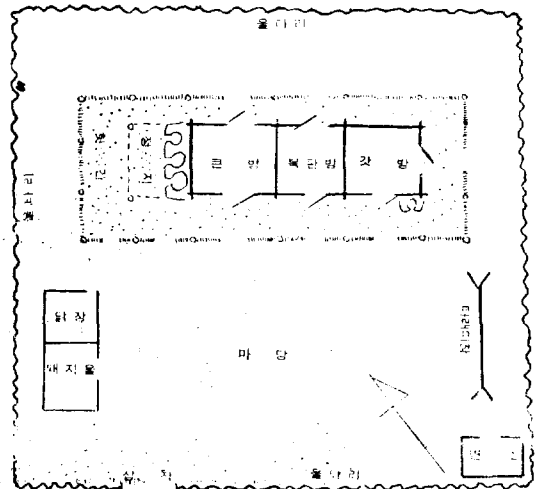


그림 6. 羅里洞 朴日楷氏宅의 家屋配置圖



하는데 이것은 江原道 山地에서의 경우와 같다.

垓地內的 建物配置는 家座가 南向인 경우는 몸채가 垓地의 北便에 놓이고, 附屬建物인 번소가 마당 건너 몸채의 앞에 또는 側面에 놓이기도 한다. 대체로 몸채에 家屋의 모든 機能이 集中되었기 때문에 附屬建物の 別棟이 거의 없다(그림 7). 建物配置의 類型은 모두 一字型이다. 번소의 크기는 2~3坪정도이며, 한겨울 내 用便을 보기 때문에 비교적 넓게 만들어졌다. 家畜의 畜舎로는 매우 빈약한 구조로 된 累木의 돼지울·닭장·마구가 몸채 밖에 있다. 馬廄는 없는 집이 많다. 마당은 몸채의 前面에 있고 農作物의 打作場·乾燥場·作業場·堆肥場 등으로 이용된다. 마당의 側面에, 또는 몸채의 側面에 울릉도의 독특한 옥수수 乾燥場인 다래미장이 있다. 다래미는 수확한 옥수수를 건조시키기 위해서 엮어서 둥글게 달아맨 것이다.

## 8. 要約 및 結言

韓半島에 累木型民家인 투방집이 出現한 것은 鐵器文化의 傳來以後로 본다. 울릉도의 투방집은 약 90年前의 開拓移住民에 의해서 傳來된 것이다. 外部와 交通이 적은 奧地에서 孤立된 生活을 하는 곳에서는 周邊에 많은 建築材를 사용하여 家屋을 세운다. 羅里洞에서도 開拓移住者들은 울창한 樹木을 벌채하여 累木型民家인 투방집을 建築했고, 또 풍부한 木材를 사용하여 너와를 지붕 材料로 했다. 現在는 伐木이 금지

됨에 따라서 점차로 투방집이 화통집으로 變容되고, 너와가 새(茅) 및 함석으로 바뀌고 있다. 지붕형은 전부 우진각이다. 우데기는 防雪·防風·防雨·遮陽의 機能을 갖는 設備이다. 그러나 上記의 네 機能 중에서도 防雪의 기능이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年中 民家の 둘레에 設置하고 있다. 투방집이라는 呼稱은 江原道 山地의 경우와 같다. 이것은 江原道 出身의 開拓移住民이 傳播시킨 文化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江原道 山地에는 우데기가 없다. 울릉도의 우데기는 冬季의 深積雪과 夏季의 風雨가 많은 自然環境에 대한 適應形態로 住民이 考案해 낸 이곳의 獨特한 文化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우데기도 원래는 새(茅)로 이엉을 엮어서 만들었으나 요즘은 永久施設로 變하여 板子와 함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江原道 山地의 民家は 椽집이 많으나, 이 곳에는 전부 홑집이다. 이것은 투방집이라는 建築上의 難點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民家の 平面類型은 3間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4間집이 그 다음이다. 전부 一字型民家로서 모든 機能이 몸채 内部에 集中되어 있고 平野部의 民家와 같은 分棟 내지 別棟의 發達이 미약하다. 이것은 積雪期에 屋外活動이 困難하기 때문에, 主로 屋內活動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이 小論文을 地理學研究와 地理學徒 教育에 獻身하시면서 1977年 11月 15日에 回甲을 맞이한 朴魯植博士님께 삼가 獻呈합니다.

(全南大學校 師大 助教授)

# A Study on Log Houses of Nari Village in Ulleung Island

Bo-Wcong Chang

## *Summary ;*

Ulleung island, lying about 44 kilometers off the eastern coast of Korean peninsula, is volcanic island. It is about 71 square kilometers in its area.

This paper is a cultural geographical study on log houses of Nari village in Ulleung island based upon field survey during winter 1976.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first appearance of log house in Korean peninsula and Ulleung island, and how it was transformed in Nari village according to different environment from peninsula.

The first settlers arrived on Nari village about eighty years ago from Kangwon Province of Korea. They built log houses at first with logs which were cut by axes. The log houses were generally roofed with shingles weighted by stones. However the log houses have been transforming into mud wall houses, since wood cutting were prohibited without permission of the authorities. The roofage made of wood is gradually changing into that of thatch or zinc plate.

According to old Chinese records and old log tumulus,

the author regards, the first appearance of log house in Korea might be in A.D 1—2 centuries, and the first spread of log houses in Korea might be related to the transmission of culture of iron age from north China to southern Korean peninsula. Because the log houses could be built with lumber since iron axes were popularly used as wood-cutting tool.

The basic log house plan is rectangular in its shape, divided into three and four sections. The elements of house plan include a kitchen, two rooms and a barn or a stable. Log house was enclosed throughout year with UDEKI of reed wall which is an equipment of protection from deep snow in winter and from rain in summer. UDEKI provides the working space in the house during deep snow season at the same time.

Reed as the materials of UDEKI is gradually substituted for thin board and zinc plate.

The arrangement of buildings in a site is commonly formed in shape. Consequently all functional spaces in the house are centered on only a main log house because the dwellers should live their winter life in the house during deep snow season.